

油價引下의 期待效果와 対応方向

韓國開發研究院

I. 序論

국際原油價格의 變動은 世界經濟에 直接·間接的으로 매우 重要的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70年代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을 통해서 분명히 立證되었다. 石油輸入國의 立場에서 보면, 直接的인 影響으로는 石油의 實質價格의 下落은 原油 및 石油製品 輸入代金의 輕減을 통한 貿易收支 改善과 對內的으로는 物價安定 및 實質所得의 增加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油價의 下落은 世界各國, 특히 先進國의 國際收支改善, 인플레이率의 減少, 消費·投資增大 등을 통한 景氣回復의 促進 및 輸入需要의 增大를 誘發하며, 이는 後進國의 對先進國 輸出이 促進되는 效果를 發生시킨다. 반면, 油價의 下落 및 需要의 減退는 產油國의 外換收入이 減少되어 開發計劃의 縮小調整 내지 遲延을 招來하여 石油輸入國의 對產油國 商品 및 用役輸出의 鈍化를 誘發하게 된다. 또한 國際金融面에서 보면, 短期的으로 產油國 國際收支의 惡化에 따라 產油國들이 純借入國으로 轉換되어 國際金融市場 構造를 變化시킴으로써 開途國의 對外借入與件이 惡化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油價引下의 效果를 韓國經濟의 立場에서 綜合해 보면, 國際原油價의 下落은 經常收支의 改善, 物價安定 및 對先進國 輸出增加를 통한 成長促進效果를 期待할 수 있는 반면, 對產油國 商品, 建設輸出의 減少 및 國際金融市場 借入與件 惡化可能性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效果도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本稿의 主 目的은 原油價格引下가 韓

國經濟의 成長·物價 및 國際收支에 미칠 短期的 期待效果를 體系의으로 分析하고 油價引下로 派生될지도 모를 負의 效果에 대한 対応 方案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II. 國際原油市場의 最近動向

1982年 下半期이후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등 페르시아灣 協力 委員會(G·C·C)의 主軸國家들을 除外한 모든 石油輸出國機構(OPEC)會員國들은 公式價格에서 배럴당 0.5~3.0달러씩 割引販賣해 왔다. 이와 같은 公式價의 實質의 引下는 1981年 下半期부터 持續된 原油市場의 供給過剩解消에 失敗한 데 主原因이 있다. OPEC은 昨年 3月 빈에서 臨時總會를 열어 產油量의 大幅의 減縮과 國別 生産量 配分의 合意를 통해 公式價格 引下防止를 試圖했었다. 그러나 世界 景氣回復의 遲延으로 需要는 沈滯된 반면, 대다수 會員國들의 外換事情이 惡化됨으로써 当初에

〈表-1〉 OPEC 主要國別 原油生産 展望
(단위: 萬배럴 / 日)

	生産量 推移		生産能力 (1982年末)	확정「쿼터」 (1983.3月)
	1982. 1月	1982. 12月		
사우디	850	510	1,100	500
이란	110	280	250	220
이라크	130	80	150	130
리비아	80	175	200	100
쿠웨이트	70	70	250	100
OPEC 合計	2,077	1,890	3,119	1,750

〈資料〉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各號

合意된 國別 生産割当量을 超過生産하여 原油市場 供給過剩이 解消되지 않고, 現物市場價格이 公式價格을 下廻함으로써 割引販賣가 不可避였었다. 이와 같이 供給過剩이 持續될 뿐만 아니라, 1982年 下半期부터는 油價引下期待로 在庫가 大量放出됨으로써 公式價引下壓力이 加重되자 OPEC는 昨年 12월에 이어 今年 1월에 두 차례에 걸친 OPEC會議를 통하여 生産量減縮 및 公式價格調整을 試圖하였으나, 會議가 決裂됨으로써 現物市場價格은 배럴당 1.5달러 내지 2.75달러로 下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價格引下壓力이 加重되자 今年 2月 18日 英國은 北海産 原油價格을 배럴당 平均 3달러씩 引下하여 2月 1日부터 遡及適用하기에 이르렀고, 北海産 原油와 競爭關係에 있으며, OPEC會員國인 나이지리아가 公式價格을 배럴당 平均 5.5달러씩 引下하였다. 이와 같이 個別的 價格引下競爭이 加熱化될 兆朕을 보이자 OPEC의 主軸國인 사우디를 中心으로 한 걸프地域 會員國들은 油價의 競爭的 引下를 防止하고, 새로운 價格體系 確立을 위한 協商을 繼續한 끝에 3月 14日 런던 第67次 OPEC 緊急會議에서 OPEC의 基準油價를 現行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15% 引下하고, OPEC 全體 產油量 上限線을 하루 1,750萬배럴로 調整하여 이를 1983年末까지 適用하기로 合意하였다. 또 이번 會議에서는 사우디의 「쿼터」量이 대폭 줄어들었음은 물론 原油市場動向에 따라 可變産油國(swing producer)의 役割을 할 것이라는 점이 特記할 만하다. 그러나 蘇聯産 原油가 더욱 싼 값으로 現物市場에 流入되어 오고 있고, OPEC內 油種間 價格差(differentials)가 完全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으며 原油需要增大가 下半期 以後에나 供給量과 均衡을 이룰 것을 勘案할 때 短期的으로는 國際原油市場의 不安定要因이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1983年 3月 14日 OPEC 議決事項이 當분간 遵守될 것이라는 假定下에 世界 및 國際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검토하기로 한다.

Ⅲ. 油價引下が 世界經濟에 미치는 影響

第2次 石油波動 以來 先進諸國의 緊縮努力에 힘입어 인플레이는 상당히 鎮靜되었으며, 油價引下로 인플레이는 더욱더 鈍化될 것이므로 先進諸國에서 緊縮基調의 상당한 緩和가 豫상된다. 이와 같이 油價引下는 物價安定의 定着 및 實質購買力 增大를 통해 世界經濟의 回復에 상당히 重要한 寄與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反面, 石油輸出國의 外換收入이 減少되어 이들 國家들의 對外借入需要가 增加됨으로써 短期的으로는 國際金融市場이 다소 梗塞될 可能性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成長 및 인플레이에 미치는 效果

油價引下는 다음과 같은 經路를 통하여 直接·間接적으로 景氣回復 促進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直接的으로는 先進諸國 消費者의 油類支出費用을 輕減시키고, 또한 全般의 인플레이의 下落으로 實質購買力 增大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면, 美國의 경우 基準油價가 배럴당 29달러로 下落되는 경우, 年間家計實質所得은 約 220億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 이와 같이 先進諸國의 實質所得이 늘어남에 따라 消費, 投資促進을 誘發하게 되며 이는 後進國의 對先進國 輸出促進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反面, 油價引下에 따라 短期的으로는 產油國의 外換收入이 減少하여 이들 國家의 對外借入 增大가 豫상되며, 이는 國際金融市場의 構造變化를 초래, 國際金利가 다소 上昇할 可能性도 있게 된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先進國에서 인플레이가 下落되고, 이에 따라 比較的 여유있는 通貨政策 基調를 펴 나갈 것이 豫상되기 때문에 美國 등 先進國의 金利는 下落勢를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같이 油價引下로 派生될 諸般效果를 勘案할 때, 基準油價가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下落한 경우 向後 1年間 先進國 經濟는 0.5% 포인트의 追加成長이 豫상되며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2년에 걸쳐 1.0~1.5%포인트 追加 下落要因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先進諸國의 經濟가 0.5%포인트의 追加成長을 示顯할 때, 世界交易量은 追加로 約 1%포인트 늘어나며,

非産油 開途國의 輸出은 約 1.5~2%포인트 水準의 增加가 豫상된다.

2. 經常收支에 미치는 效果

油價의 下落은 石油輸入國의 石油輸入負擔을 輕減시켜 經常收支改善에 기여하는 반면, 産油國의 外換收入의 減少를 가져올 것이다. 世界石油의 70% 以上을 消費하는 先進國 中에서도 石油輸入의 絶對規模와 總輸入額에 대한 原油比重이 높은 美國·日本·西獨·프랑스 등의 貿易收支改善效果가 相對的으로 클 것으로 豫상된다.

非産油開途國 中에는 原油收入 依存度가 높은 브라질·칠레·韓國·臺灣·필리핀·印度·터키 등의 輸入負擔이 현저히 減少되고, 이는 또한 對先進國 輸出增大와 더불어 이들 國家들의 經常收支가 改善되어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借入需要가 縮小될 것으로 展望된다.

反面, 油價의 下落은 石油輸出國의 外換收入의 減少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OPEC 會員國

中에서도 公式價格을 引下하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 등의 石油收入減少가 클 것으로 豫상된다.

基準油價가 29달러 水準으로 引下될 때, OPEC 全體의 石油收入減少는 年間 約 150~200億달러에 달하고, 英國·노르웨이·멕시코 등 非OPEC 石油輸出國을 포함한 總石油輸出國의 經常收支惡化는 200~250億달러에 이를 것으로 豫상된다.

世界全體로 볼 때, 石油輸出國의 經常收支惡化는 石油輸入國의 經常收支改善을 意味하며, 基準油價가 29달러로 引下된 경우 先進國은 年間 150億달러, 非産油開途國은 約 75億 달러의 經常收支改善을 이루게 될 것으로 推定된다.

3. 國際金融市場의 借入与件 变化

가. 最近 國際金融市場 需給構造의 变化

두차례에 걸친 油價의 急上昇으로 因한 막대한 油價 餘利(oil money)가 流入됨으로써 1970年代 國際金融市場은 年間 20%를 상회하는 伸張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81년에는 策2次 石油波動이후 油價가 安定됨에 따라 産油國의 新規預金은 1980年의 416億달러에서 1981년에는 32億달러로 減少되었다. 이러한 産油國의 新規預金 減少는 先進國의 預金增加로 補完되어 非産油開途國의 借入은 큰 減少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82년에는 國際金融市場 事情이 크게 惡化되어 OPEC는 1982年 1/4~3/4 分期中 預金引出額 104億달러, 新規借入額 77億달러, 合計 181億달러의 純借入國으로 轉落하는 한편, 先進國도 1981年 경우와는 달리 新規預金の 增加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非産油開途國의 借入与件이 매우 梗塞되었으며, 특히 3/4 分期에는 償還所要額이 新規借入을 上廻하였다.

나. 開發途上國의 借入与件变化

世界景氣 沈滯의 長期化에 따른 國際原資材價格의 下落으로 原資材 輸出開途國의 外貨收入이 激減되고, 또한 既存 外債累増과 高金利로 償還負擔이 加重되어 왔다. 최근 멕시코, 아

〈表-2〉 先進國의 原油輸入 (단위: 億달러)

	總商品輸入(A)		原油輸入(B)		原油輸入比重(B/A,%)	
	1981	1982	1981	1982	1981	1982
美國	2,734	2,553	785	601	28.7	23.6
日本	1,427	1,322	587	510	41.1	38.6
西獨	1,633	1,622	318	288	19.5	17.7
프랑스	1,205	1,222	242	210	20.0	17.2
英國	1,040	966	-130	-71	-12.5	-7.3

〈註〉 1) 英國의 경우는 總商品輸出 對比 原油輸出額.

〈表-3〉 「그룹」別 經常收支 推移와 展望 (단위: 億달러)

	1980	1981	1982	1983展望	
				34\$/B	29\$/B
先進國	-406	-10	-40	-100	+50
開途國					
石油輸出國	1,143	650	10	30	-195
非産油國	-889	-1,033	-900	-700	-625
(石油輸入)	(630)	(670)	(670)	(700)	

〈註〉 1) 1983年 \$ 29/b 기준으로 한 전망은 油價引下에 따른 直接的인 变化만을 반영한 것임.

〈資料〉 實績 및 \$ 34/b 基準 1983年 展望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 1983.

르헨티나 등의 外債支給不能事態 以後 國際金融市場에서 開途國에 대한 資金供給이 크게 萎縮된 반면, 產油國의 國際收支惡化 및 非產油開途國의 계속적인 資金需要增加로 인하여 國際金融市場의 加算金利(spread)가 上昇되고, 償還期間 短縮 등 借入條件의 惡化趨勢을 보이고 있다.

다. 油價引下에 따른 國際金融市場의 展望

基準油價가 29달러로 引下됨에 따라 石油輸出國 經常收支惡化는 200~250億달러 水準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약 1/3은 非產油開途國의 經常收支改善으로 나타난다고 假定할 때, 이들 國家들의 借入需要는 점차 減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油價引下로 先進國의 景氣回復이 예상대로 促進된다면 先進國의 預金이 增加되는 반면, 開途國의 1次商品 및 新興工業國의 工產品輸出이 增大됨에 따른 經常收支改善으로 借入需要의 감소가 기대된다. 따라서 油價引下에 따라 世界景氣回復이 促進된다면, 國際金融市場의 심각한 資金梗塞은 惹起되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반면, 이미 과도한 外債償還負擔을 안고 있는 멕시코·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 등 일부 產油開途國들의 石油收入減少로 이들 國家의 外債償還不能可能性 및 이로 인한 連鎖的 金融秩序混亂에 따른 國際金融市場의 不安要因도 同時에 內在되어 있다. 그러나 國際金融面에서 國家間의 相互依存度가 높고, 특히 美國 등 先進國의 멕시코 등 對後進國의 政治·經濟的 利害關係, 그리고 過去의 비슷한 危機에 처했을 때 타개를 위해 發揮되어온 리더십 등을 勘案할 때 先進國들은 國際金融危機克服을 위한 努力을 強化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努力의 具體的인 一環으로 最近 IMF의 쿼터를 47% 增額하기로 決定을 보았으며, 一般借入協定(GAB)의 增額 및 參加範圍의 擴大 등 國際金融 危機防止를 위한 制度的 裝置의 強化가 摸索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油價가 引下되어 70年代와는 달리 產油國으로부터의 剩餘資金의 還流가 終熄되고, 이들 國家가 純借入國化됨으로써 對外借

入需要가 增大되는 반면, 非產油開途國들의 經常收支改善으로 國際金融市場으로부터 借入需要가 減少되며, 先進諸國의 景氣回復促進에 의한 預金增加로 전체적으로 資金需給面에서는 심각한 資金梗塞 可能性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短期的으로 產油國이 借入國으로 轉換되어 國際市場의 構造變化에 따라 加算金利가 上昇할 可能性은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國際金融市場의 構造變化에 따르는 秩序回復 및 일부 產油國의 外債償還不能으로 惹起될지도 모를 不安要因을 解消하기 위하여 先進國을 中心으로 한 노력의 強化되고 있는 趨勢에 비추어 볼 때 金融市場의 심각한 資金梗塞 및 支給不能事態로 인한 西方銀行의 連鎖的인 破産 등과 같은 金融危機는 惹起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外債負擔이 큰 일부 國家들은 IMF 등 國際金融機關의 資金支援에 隨伴될 經濟運用의 調整으로 당분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IV. 油價引下의 國內經濟影響

國際油價의 引下는 우리 經濟에 直接·間接的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直接的인 影響으로는 國內 物價安定에 寄與하고, 原油輸入代금이 輕減되는 反面, 對中東建設 및 商品輸出의 減少가 予想된다. 間接的으로는 世界經濟回復의 促進에 따른 交易量이 增大됨으로써 輸出이 增加되어 우리 經濟의 成長이 促進될 것으로 期待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油價引下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直接·間接的인 影響을 項目別로 考察한 후, 綜合的으로 成長, 物價 및 國際收支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1. 中東 建設輸出 展望

韓國의 海外建設은 지난 數年間 급격히 增加하여왔다. 即 1980년에 83億달러에서 1981년 및 1982년에는 年間 137億달러 및 134億달러를 記錄하여 1982年末 現在 工事受注殘額이 235億달러에 이르고 있고, 海外建設에 따른 外貨入金額도 1981년에 21.7億달러, 1982년 24.5億달러

에 달해 1982년을 基準으로 外貨入金額이 GNP의 3.7%, 貿易外收支의 約 1/3에 이르고 있는 実情이다.

이러한 海外建設의 대부분이 中東에서 受注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우디 아라비아·이라크·리비아의 3국이 中東 全体 受注額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中東市場은 70年代 中盤以後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成長을 可能케 했던 主要因 중의 하나가 되어 왔으나, 1981年 下半期以後 國際原油市場의 供給過剩持續으로 原油 價가 下落하기 시작하고, 이란 事態, 이란·이라크戰 때문에 各國의 石油收入이 減少하여 財政難으로 經濟開發計劃의 縮小가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趨勢를 反映하여 1982年에 들어서는 中東으로부터의 建設受注가 約 10%, 對 中東商品輸出이 15% 정도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中東諸國의 經濟構造가 石油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1981年 末以後 國際原油市場의 새로운 움직임은 各國의 經濟開發計劃 遂行上 蹉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가.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는 1983年 基準油價가 배럴 당 29달러水準으로 引下되고, 年平均 1日 生産量이 5百萬배럴 水準으로 下向調整된다면 石油收入은 約 30% 정도 減少될 것으로 予想된다. 따라서 950億달러에 이를 1983年 財政運用에 蹉跌이 予想되나 石油化學製品과 非石油商品輸出이 50億달러 정도가 予想되고 1982年 末 현재 約 1,600億달러에 달하는 外貨資産을 保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投資收益만도 年間 100億달러를 上廻하며 世界景氣의 本格的인 回復 등으로 1985年 頃부터는 原油市場도 好轉될 것으로 假定할 때, 原油收入 減少幅에 比例한 予算의 大幅의 縮小나 急激한 建設發注額의 減少는 없을 것으로 予想된다. 다만, 지난 10餘年間 두 차례의 5年計劃의 推進을 통하여 下部構造建設이 많이 進陟되었으며, 또한 사우디 第3次開發計劃期間中 推進될 工事의 상당분이 그 1·2次年度인 1981, 82년에 이미 發注되어 1983年以後에는 下部構造에 관련된 工事發注量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予想된다. 現在 推進中인 第3次

5年計劃의 開發予算이 이와 같은 趨勢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同期間中 下部構造建設 予算比重은 第2次 5年計劃 開發予算에 比하여 約 15%나 낮게 策定되어 있는 반면, 기타 社會·經濟開發部門의 予算比重은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近年에 들어 사우디 發注工事中 單純土木工事의 比重이 떨어지면서 總發注量 中 韓國의 受注比率이 점차 下落해 왔던 점을 勘案한다면 1983年 우리나라의 對사우디 建設受注는 油價引下가 없는 경우 約 70億달러, 배럴 당 29달러로 油價가 引下한 경우 65億달러水準으로 減少가 予想된다. 따라서 油價引下에 따른 受注額 減少는 불과 5億달러 水準임을 意味한다.

나. 이 라 크

이라크는 3年째 繼續되는 對이란戰으로 石油生産施設이 破壞되었고, 하루 50萬배럴의 輸送이 可能的인 送油管을 시리아에 遮斷 당함으로써 石油生産이 크게 減少되었다. 그 동안은 戰費調達을 위해 사우디, 쿠웨이트 등으로부터 이미 300億달러 정도의 援助를 받았으나, 이들 國家의 財政惡化로 1983년에는 援助가 大幅 削減될 것으로 展望된다. 外換保有額도 1982年 2월에 320億달러에 달하던 것이 1982年 末에는 100億달러 水準으로 減小됨에 따라 既存 工事代金の 支給이 遲延되는 傾向마저 보이고 있다. 新規工事も 그 規模가 크게 줄고, 供給者信用이나 延拂條件이 優先됨으로써 新規受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財政上의 어려움으로 韓國의 對이라크 建設受注는 이미 1981年 19.5億달러, 1982年 15億달러 水準에서 急落하였으며, 1983년에는 新規受注는 거의 期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리비아

리비아는 1982年 美國의 對리비아 禁輸措置 및 美石油資本의 撤収로 石油收入이 減少하였으며, 1982年初 330億달러를 上廻하던 外換保有額이 年 末에는 60億달러로 大幅 減少하여 現在 推進中인 第6次 5年計劃의 財源調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大規模工事의 發注

를 抑制 내지 中斷하고, 既成高에 대한 代金の 일부를 原油로 支給하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나라의 沙우디 建設受注는 1981년에 24.7 億 달러에서 1982년에 10.6 億 달러 水準으로 大幅 減少되었으며, 1983년에도 계속적인 財政難으로 建設工事의 新規發注가 크게 減少하고 代金 支給條件이 惡化되어 韓國의 新規受注도 크게 萎縮될 것으로 展望된다.

東南亞의 主建設市場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으로 構成되어 있다. 1981년 및 1982년 이들 4個國에 대한 建設受注額은 各各 6.4 億 달러, 17.8 億 달러이었으며 이 중 인도네시아의 占有率은 平均 14% 水準에 달했다.

이들 東南亞國家들은 油價引下에 따른 世界景氣促進으로 인한 輸出의 增大가 予想되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外換收入의 減少는 非石油 輸出의 增大로써 어느 정도 補填할 수 있으리라 展望된다. 따라서 이들 國家들에 對한 新規建設受注額은 1982年度 水準에 달할 것으로 展望된다.

2. 綜合的인 建設受注 및 外貨入金 展望

1983年 總建設受注額은 油價引下가 없는 경우, 100 億 달러 水準에서 基準油價가 배럴당 29 달러로 引下되는 경우 約 11 億 달러가 減少한 89 億 달러 水準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油價引下에 따른 新規受注

減少는 受注比重이 높은 中東地域에 偏重되어 있다. 沙우디 受注減少가 5 億 달러 水準이며, 이란·리비아로부터의 受注 또한 5 億 달러 정도 減少될 것으로 予想된다. 기타 中東地域으로부터의 受注는 1 億 달러 정도의 減少에 머물게 될 것으로 推計된다. 建設受注高의 減少뿐 아니라 代金決濟條件도 惡化되어 總施工對象額에 대한 外貨入金額의 比率이 下落할 可能性이 높다. 우선 契約額에 대한 先受金 比率이 1981年까지의 平均 20%線에서 1982년에는 10%로 引下되었으며, 이 比率은 앞으로 더욱 低下될 可能性이 있다. 또한 外換保有高의 減少로 工事期間의 延長要請, 既成高 代金支給遲延, 工事代金 現物支給 事例 增加 및 不實·不振工事로 인한 クレ임도 增加하여 施工對象額에 대한 外貨入金比率은 이미 1981年 7.8%에서 1982년에는 7.5%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趨勢로 볼 때, 앞으로 全般的인 工事收益性이 例年에 비해 떨어질 可能性이 있다. 1983年의 海外建設輸出 外貨入金額은 總施工對象額에 대한 外貨入金額의 比率을 油價引下가 없는 경우 1982年과 같은 7.5%로 보고 29 달러 油價引下의 경우에는 7.1%로 下落한다고 볼 때, 各各 25 億 달러 및 23 億 달러 推計된다. 따라서 油價引下에 따른 外貨入金額의 限界的 減少는 向後 1年間 約 2 億 달러 水準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같이 油價가 15% 가까이 下落함에도 불구하고, 短期的으로 外貨入金額의 減少가 小幅에 그친 主理由는 지난 12年間 工事受注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外貨入金이 約 3年間의 工事期間 동안 持續되는 時差가 隨伴되기 때문이다.

<表-4> 海外建設 新規受注

(단위: 億 달러)

	1980	1981	1982	1983年展望	
				34 \$/B	29 \$/B
合 計	83	137	134	100	89
中 東	78	127	114	80	69
(構成比, %)	(95)	(93)	(85)	(80)	(78)
主要 3 國	70	122	109	75	(65)
(沙 烏 迪)	52	78	83	70	(65)
(이 라 크)	4	19	15		
(리 비 아)	14	25	11	5	0
東南亞 등 其他	6	10	20	20	20

<表-5> 海外建設 外貨入金額

(단위: 億 달러)

	1981	1982	1983年 展 望	
			\$34/b	\$29/b
總 施 工 對 象 額	279	329	335	325
前 年 末 契 約 殘 額	142	195	235	235
新 規 受 注	137	134	100	90
工 事 代 金 受 取	84	94	96	90.7
(施工對象額對比, %)	(30.1)	(28.7)	(28.7)	(28.0)
外 貨 入 金 額	21.7	24.5	25.0	23.0
(施工對象額對比, %)	(7.5)	(7.5)	(7.5)	(7.1)

3. 中東 商品輸出 展望

우리 나라의 對中東 商品輸出은 70~80%가 建設輸出과 關連된 鐵鋼材, 시멘트 등 建築資材이며, 나머지는 食品, 衣類 등 生活必須品으로 構成되어 있다. 建設關連商品輸出은 總工事施工對象額에 比例하며, 따라서 油價引下에 따라 予想 建設受注額이 減少되더라도 지난2年間 工事受注의 增加에 의한 契約殘額을 考慮할 때, 短期的으로는 크게 縮小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食品, 衣類 등 기타 商品輸出은 經濟 與件變化에 따른 需要가 非彈力的인 점을 勘案할 때 油價引下에 따른 限界의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予想된다. 다만, 外換事情이 극히 惡化된 처리비아 및 이라크의 商品輸出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1983年 建設受注殘額, 新規受注展望 및 石油收入展望 등을 勘案할 때 油價引下에 따른 對中東 商品輸出 減少는 約 1.2億달러 水準이 될 것으로 推計된다.

〈表-6〉 對中東 商品輸出
(단위: 通關基準, 億달러)

	1980	1981	1982	1983年 展望	
				34\$/B	29\$/B
總 商品輸出	172.0	207.0	209.6	232	234
對中東輸出 (構成比, %)	16.7 (9.7)	21.6 (10.4)	18.3 (8.7)	18.3 (7.9)	17.1 (7.3)
主要 3 國 ¹⁾ (사우디아라비아)	11.5	17.4	13.1	13.5	12.6
	9.5	11.4	11.2	12.2	11.7

(註) 1)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4. 国内 石油化学工業에 대한 影響

国内 石油化学工業은 1980年 以來 国内需要의 急激한 沈滯 및 大規模 施設擴張에 따른 需給 不均衡, 國際高金利 趨勢에 따라 利子負擔이 加重되었고, 外國의 低價製品流入등으로 近年에 극심한 經營難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1982年 3月 国内 나프타價格의 引下 및 國際金利가 下落하여 經營狀態가 약간 改善되어 가고 있다. 即, 国内業界 전체로 보아 1980

年, 81年에 各各 950億원, 800億원의 赤字總額이 1982年에는 約 350億원 정도로 減縮 되리라 予想된다. 原油價가 引下될 경우에는 低價의 天然가스를 原料로 하는 產油國의 石油化学 製品 流入可能性이 相對的으로 減少하여 国内 石油化学工業의 稼動率을 높여줄 可能性이 있고 나프타價格의 引下로 因한 製品價 引下는 需要增大를 誘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油價引下는 長期的으로 石油化学業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表-7〉 韓國 原油輸入의 國別構成

	1981	1982
導入額(億달러)	63.8	60.8
導入量(億배럴)	1.83	1.78
國別構成(%)		
사 우 디	58.2	50.3
쿠 웨 이 트	21.4	11.5
이 란	8.0	13.3
인 도 베 시 아	1.6	8.8
에 콰 도 르	3.2	5.3
리 비 아	0.6	3.4
브 르 네 이	0	2.7
U A E	2.6	0.7
말 레 이 지 아	1.3	1.2
其 他	3.1	2.8

〈資料〉 動力資源部

5. 油價引下の 国内經濟 綜合 期待效果

本項에서는 油價引下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① 原油輸入 負擔 輕減 ② 中東建設 및 商品輸出 減少 ③ 世界經濟 回復促進에 따른 非中東 商品輸出增加 效果로 구분하여 考察하고 다음으로 이를 綜合해서 成長, 物價, 國際收支 效果로 要約하기로 한다.

가. 原油輸入負擔 輕減效果

우리나라는 原油輸入先의 多邊化努力으로 總 原油導入量 中 사우디 및 쿠웨이트의 比重이 1981년 79.6%에서 1982년에 61.8%로 下落하였다. 따라서 基準油價(사우디 아라비안 輕質 油 基準)가 배럴當 5 달러 引下되고, 기타 國家

들의 原油價格이 이보다 小幅인 4 달러 引下된다고 假定할 때, 우리나라 原油輸入複合單價는 約 4.6달러 下落되는 것으로 보았다.¹⁾

우리나라의 原油導入量은 에너지節約 및 石油代替努力에 힘입어 1980年 以來 다소 減少하고 있으며, 石油消費減縮政策이 繼續되는 것을 前提로 할 때, 原油價가 引下되더라도 導入量은 1982年 水準인 年間 1.8億배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油價引下에 의한 年間 原油輸入負擔 輕減額은 約 8.3億달러로 推計된다.

나. 中東 建設 및 商品輸出 減少效果

油價引下에 따라 1983年 建設外換入金額은 1982년의 25億달러에서 23億달러로 減少되며, 輸入單價는 約 2.5%포인트 下落이 豫想된다. 따라서 油價引下가 없는 경우 輸入單價가 前年과 同一하다고 볼 때 油價引下에 따른 物量基準의 建設外換入金額 減少가 GNP에 미치는 영향은 -0.21%포인트로 推計된다.²⁾ 또한, 名目商品輸出이 18.3億달러에서 17.1億달러로 減少되며, 輸出單價는 油價引下를 勘案하지 않을 경우는 2% 上昇에서 油價引下에 따라 上昇率이 約 1%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實質商品輸出의 減少에 따른 GNP 成長率은 約 0.14%포인트가 된다.³⁾

다. 世界 景氣回復에 따른 輸出增大效果

過去 世界 効易量 增加에 對한 韓國輸出의 彈性値는 約 3.0에 달했으나 輸出規模가 擴大되고 保護貿易主義 傾向이 深化된 現在에는 2.5 水準으로 보는 것이 現實의 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油價가 배럴당 29달러로 引下되는 경우 世界 交易量이 1年間 約 1% 추가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韓國의 非中東地域輸出은 約 2.5% 정도

增大될 것으로 期待된다. 이렇게 볼 때 實質商品輸出 增加는 非中東 輸出 比重을 勘案할 때, 年間 2.28%포인트 水準의 追加增大가 豫想된다. 輸出增大로 인한 投資 및 輸入誘發效果 등을 勘案한 輸出에 대한 GNP의 彈性値는 0.3으로서 非中東地域 商品輸出의 追加增加 2.28%에 대한 GNP 成長效果는 0.68%로 推計된다. 또한 非中東 商品輸出增加에 의한 經常収支 改善效果는 油價引下에 따라 豫想되는 輸出單價上昇率 下落要因 約 1%를 勘案하면 2.74億달러 水準으로 推定된다.⁴⁾

라. 物價 下落效果

우리나라의 都賣物價 構成項目中 石油類製品의 直接的인 加重値는 13.6%이나, 産業用電力 등 中間財 投入分까지를 고려하면, 約 22%를 占하고 있다.

그러나 中間財로 石油類의 投入이 적은 製品의 경우에는 油價引下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을 可能性이 크므로 實際로 都賣物價 下落要因은 油價引下分 14.7% 全部를 國內物價에 반영시킨다고 假定할 때 約 2.8% 水準이 될 것이다.

消費者物價에는 直接的인 油類加重値가 매우 작으나 燃料費, 交通費 등 全般的인 製品原價의 引下를 反映하여 1~1.5%의 下落要因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또한 油價引下에 따른 物價下落은 인플레이션을 拂拭하는 데 도움이 되어 貨金·金利 등 코스트의 安定에 寄與함으로써 時差를 두고 派生的인 物價安定寄與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그러나 油價引下에 따라 美달러貨의 1~2% 強勢要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換率이 調整될 경우, 國內物價 下落要因은 0.4~0.8%로 줄어들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油類의 消費節約 등의 目的을 위해 原油

1) 加重平均輸入價格單價 $\$4.6 = \$5 \times 0.62 + \$4 \times 0.38$ 임

2) GNP成長效果는 $[23.0 \text{億弗} / (1 - 0.025) - 25 \text{億弗}] / 662 \text{億弗} (82年 GNP) = -0.21\%$

3) 實質商品 輸出增加: $[17.1 \text{億弗} / (1 + 0.01) - 18.3 \text{億弗} / (1 + 0.01) - 18.3 \text{億弗} / (1 + 0.02)] / 200 \text{億弗} (82年輸出) = -0.48\%$
따라서 GNP成長 = $-0.48\% \times 0.3 = -0.144\%$

4) 油價29弗 引下時 都賣物價는 1年内 約 1.7% 安定될 것이나 美달러 強勢要因, 世界景氣 好轉등을 감안할 때 수출단가는 約 1% 下落要因이 발생할 것으로 豫想된다. 1983年의 非中東 商品輸出 實質增加率 展望은 10%이며 따라서 經常収支 改善效果는 $192 \text{億弗} [(1.1 + 2.5\%) 1.01 \cdot 1.1 \cdot 1.02] = 2.74 \text{億弗}$ 이다.

價引下分の 일부를 關稅, 安定基金 등으로 吸收한다면, 그만큼 國內物價下落要因은 減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關稅의 增加로 通貨供給이 그만큼 줄거나 關稅增加에 相應하게 다른 間接稅를 引下해 준다면 다소의 時差는 있더라도 物價는 下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諸要因을 勘案할 때, 29달러로의 油價引下는 1年內에 都売物價 1.7%, 消費者物價 1% 水準의 安定效果가 期待되며, 2年이 되면 各各 2.9% 및 1.5~2.0%의 安定效果가 豫想된다. 그러나 油價引下分の 30%정도만이 國內物價에 反映된다고 가정할 때, 油價引下로 인한 國內物價安定效果는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마. 成長 및 國際收支效果의 綜合

上述한 油價引下の 國內經濟影響中 GNP 成長效果를 綜合하면, 基準油價가 배럴당 29달러로 引下時 世界景氣 好轉으로 인한 輸出增加로 0.68%의 GNP增加要因이 발생하는 反面, 海外建設의 外貨入金 및 對中東 商品 輸出이 줄어 GNP에는 各各 0.21%, 0.14%의 成長鈍化 效果를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全體的인 成長效果는 年間 約 0.33%에 달한 것으로 推定된다.

國際收支效果를 綜合하면, 原油輸入代金 輕減으로 8.3億달러, 世界景氣 好轉으로 인한 輸出增加分 2.7億달러의 正의 效果와 海外建設 外貨入金減少 2.0億달러, 對中東 商品輸出 減少 1.2億달러, 國內 成長促進에 따른 輸入誘發 效果 0.7億달러의 負의 效果를 고려할 때 年間 約 7.1億달러 水準의 經常收支 改善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또한, 油價引下는 短期的으로는 國際金融市場의 構造變化 및 不確實性 增大로 특히 開途國 借入与件 惡化를 招來하여 加算金利 등 實際借入費用의 上昇이 予想된다. 따라서 油價引下後 1年內에는 國際金利 下落으로 인한 經常收支 改善效果는 크게 期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 提示된 GNP成長 및 國際收支 效果는 油價引下後 1年間에 期待되는 效果이며, 油價引下에 따른 인플레이션 下降 및 景氣好轉에 相應하는 通貨供給을 調整해 나감을 前提로 推計된 것

이다. 따라서 通貨供給의 調整이 隨伴되지 않는다면, 物價安定效果는 다소 減少하는 반면, GNP成長效果는 다소 크게 나타날 것이다. 油價引下가 國內經濟에 미치는 期待效果를 1983年에 국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推定된다.

- GNP 成長 0.25~0.3%
- 經常收支 改善 6.0億달러
- 消費者 및 都売物價安定 0.4%~0.7%

V. 油價引下에 對한 國內政策 對應

1. 에너지 政策의 合理化方案

가. 石油依存度 減縮 및 에너지 消費節約 努力의 持續化

油價가 下落할 경우 先進國의 石油代替 및 에너지節約 努力이 後退할 것으로 보이므로 長期的인 原油價 安定은 樂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脫石油化政策 및 에너지 效率性 提高를 위한 努力이 持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政策目標達成을 위한 一環으로 油價引下分の 일부를 關稅로 吸收하여 石油安定基金 補充을 통해 代替에너지開發 및 에너지 利用合理化를 위한 投資支援에 이용하고 國際油價 變動의 國內經濟 波及效果를 最小化할 있는 安全瓣으로 活用하는 力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節約 努力의 持續을 위한 開稅吸收 方案은 先進國에서도 檢討中이며, 이와 같은 努力이 成功을 거두기 위해서는 主要 原油輸入國들의 共同步調가 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關稅追徵은 또한 稅收의 缺陷을 메울 수 있고, 이를 다시 基幹産業에 投資함으로써 中東建設市場 沈滯에 對備할 수 있을 것이다. 油價引下分을 國內油價에 反映할 때도 油種別로 差異를 두어 波及效果가 큰 産業用 油類의 引下幅을 여타 油種에 비해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原油 導入体制의 改善

原油의 安定的 低價導入을 위해 對產油國 外交

및 經濟協力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하고 中東 이외의 地域으로 原油導入先이 多邊化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輕微한 現物市場導入 比率을 擴大하여 不利한 長期契約을 低價의 現物市場導入으로 轉換, 長期契約과 現物市場導入을 적절히 혼합해야 하고 이를 위해 國內精油會社들이 現物市場에서의 原油導入 交渉能力培養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 에너지 價格體系의 合理化 및 備蓄擴大.

油種間 價格構造의 調整으로 需給構造의 不均衡을 是正하고, 電力料金, 石炭價格體系를 改善함으로써 石炭·石油·電氣 등 에너지 種別 需給管理의 適正化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國際原油市場 動向을 勘案한 原油 및 石油製品의 適正備蓄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建設輸出의 持續的 伸張方案

가. 技術開發 및 經營合理化 努力의 強化

産油國의 發注는 單純土木·建築工事に 비해 機械, 電氣, 通信 등 플랜트·엔지니어링의 比重이 커가는 반면, 우리 나라의 受注는 그 반대이므로 先進國 企業과의 콘서시움(consortium) 結成으로 合作進出을 擴大해야 할 것이다. 또한 都市建設, 造景 등 建設工事 이후의 維持·管理에 참여를 擴大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内部的으로는 財務構造의 堅實化를 위해 부분별한 受注를 止揚하고, 經營合理化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나. 受注增大를 위한 政府支援의 効率化

첫째, 技術 및 人力開發의 支援策으로 技術開

發을 위해 補助金支援을 擴大하고, 技能工養成 및 技術支援教育의 실시 및 海外進出業體를 業種別로 專門化하여 選別支援해야 할 것이다.

둘째, 金融 및 稅制支援策으로 優良企業, 新技術開發 新市場開拓企業 위주로 支援하여 企業體質을 強化하고, 有望新市場 開拓初期의 延拂輸出支援 및 위험에 대한 損失을 補填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市場多邊化 努力을 위한 外交支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環太平洋 共同體 構想에 따라 東南亞·中南美·濠洲 등의 市場開拓, 資源保有國 爲主로 아프리카 市場을 開拓해야 할 것이다.

다. 海外建設 情報 및 受注管理의 強化

海外建設協會 등의 仲裁를 통해 過當競爭을 防止하고, 지금까지의 按配式 調整의 弊端을 是正해야 하며, 專門家の 事前審査를 통해 受注對象工事의 收益性을 점검하여 덤핑 輸出을 방지하고 契約高 위주 지원을 止揚해야 한다. 아울러 品質改善을 통해 점진적으로 國産原資材의 使用을 擴大함으로써 外貨稼得率 向上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海外建設 및 國際原資材 市場 情報體制의 確立을 위해 海外公館, 海外建設協會, 韓國海外建設株式會社(KOCC), 海外技術公社(KCI), 大韓貿易振興公社(KOTRA) 등을 통한 多角的인 情報網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油價引下에 따른 海外建設與件變化에 效率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建設代金を 原油로 받는 경우의 對策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土木工事 등에서 現地法人과의 合作을 시도하고 先受金 比率의 引下, 代金決濟 遲延 등에 따른 建設會社의 資金壓迫을 緩和하기 위한 金融支援擴大策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企業人은 좋은 製品, 소비자는 바른 消費